
濟州島 方言의 象徴語 研究

이를 教育學碩士 學位論文으로 提出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語教育專攻

提出者 李 英 姬

指導教授 金 洪 植

1982 學年度

李英姬의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主審: 徐 暎 錫 (印)

副審: 金 洪 植 (印)

副審: 金 光 雄 (印)

1982 學 年 度

= 目 次 =

I. 緒 論	11
1-1. 研究目的 및 方法	11
1-2. 研 究 史	11
1-3. 象徵語의 定義	14
II. 資 料 分 類	14
2-1. 資 料	14
2-2. 語形構成別 分類	15
2-3. 意味內容別 分類	17
III. 造語論的 考察	24
3-1. 方 法 論	24
3-2. 接尾派生法에 依한 象徵語體系	24
3-3. 派生象徵語	26
IV. 音聲象徵의 一考察	29
V. 結 論	34
參考文獻	36
Summary	37

I 緒 論

1-1. 研究目的 및 方法

濟州島方言이 稀貴하고도 特異한 存在이다 함은 일찍부터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小倉進平氏(1911년)에게서부터 始作된 濟州島方言의 研究는 國內 學者로는 方鍾鉉氏(1937년)를 筆頭로 하여 現今에 이르기까지 많은 學者들에 의해 餘他 方言에 비해 많이 研究되어졌다. 그러나 가장 많이 研究되어졌다고 하는 音韻論, 形態論 分野에도 정리되지 않은 問題가 山積해 있지만 語彙論, 統語論 等은 原始林 그대로라고 한다.¹⁾

濟州島方言(以下 方言이라고 함)은 여러 가지 理由에 의하여 特異한 語彙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國語에 缺 풍부하게 발달되어 있다는 象徴語 쪽에도 方言 特有的 것들이 많음을 인정할 수 있었다.

이에 관심을 두고 있는 筆者는 現代 및 李朝時代 國語의 象徴語에 대한 先行研究를 통해 象徴語의 定義를 확실히 한 후, 그 基準에 의해 既刊 方言 資料集²⁾과 周邊의 言語生活를 통해 採取한 方言 特有的 象徴語資料를 形態別(語形構成別), 內容別로 分類·提示하고, 다음으로는 造語論의 面과 音聲象徴面에서 方言象徴語의 特異性을 살펴보고자 한다.

1-2. 研 究 史



現代 및 李朝時代 國語를 대상으로 象徴語 또는 音聲象徴을 研究한 論著들 中에서 筆者가 참고할 수 있었던 것들의 內容을 간략히 보이고자 한다.

1. 李崇寧(1957, 1978)—接尾辭 ‘-k’와 ‘-ŋ’의 체계(-m°k, -m°ŋ; -t°k, -t°ŋ; -p°k, -p°ŋ; -s°k, -s°ŋ; -č°k, -č°ŋ; -r°k, -r°ŋ; -k°k, -k°ŋ)가 부사형 形成에 生産的임을 例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³⁾ 『國語音聲象徴論』에서는 母音의 音色의 대립이 語義에 重大한 潤色을 加하여 語感의 대립 또는 語義의 대립을 結果함을 말하고, 現代國語의 音色體系를 論한 후 中世國語의 音色體系를 再構하고 있다.⁴⁾

1)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1, 韓國精神文化研究院(1979), pp.32~49 및 〈方言〉2, (1979), pp.35~56 참조

2) _____, 『濟州島 方言研究』, 서울: 精研社(1962).

朴用厚, 『濟州 方言研究』, 서울: 동일문화주식회사(1960).

金榮教, 『濟州島 民謠研究』, 서울: 일조각(1965)

3) 李崇寧, 『國語造語論試攷』, 〈진단학보〉18, 진단학회 (1957), pp.48-86.

4) _____, 『國語音聲象徴論에 대하여』, 〈한어〉3-1, 한국언어학회(1978), pp.1~18.

2. 趙圭高(1958)一象徵語의 中心的 位置에 있는 疊用副詞(1136어휘)는 形態論的 考察로써 意義部와 形態部로 分析할 수 있는데, 音象徵의 主要機能은 形態部, 其中에도 末音이 많고 있다고 하고,⁵⁾ 各末音의 音象徵에 대해서 論했다.⁶⁾

3. 南豐鉉(1966)一語辭分化의 출발이 語感 表現에 있었고 이것이 二次的인 발달에 의하여 中心意味까지도 分化한 것으로 파악, 15C 국어의 象徵的 對立體系를 확립하여 이를 토대로 國語語源研究의 한 기틀을 마련하고자 했다.⁷⁾

4. André fabre(1967)一辭典이나 文學作品에서 3661개의 擬聲語와 擬態語를 여러 가지 특징을 지닌 副詞로 보고, 形態와 內容의 관계와 音聲象徵을 研究하였다.⁸⁾

5. 鄭大河(1967)一象徵語의 分類法에 대해서만 다루었다. 聽覺語, 感嘆語, 視覺語, 色彩語, 味覺語, 觸覺語, 嗅覺語의 七分法을 주장하였다.⁹⁾

6. 韓相珏(1967)一象徵語의 修辭學的 心理와 象徵語 구사의 例와 그 類型에 대해 論했다.¹⁰⁾

7. 金宗澤(1968)一국어에서 象徵에 의하여 命名되었으리라고 생각되는 몇 語를 취하여 그것을 전혀 계통이 다른 언어의 대응되는 말과 비교, 거기서 共通되는 音聲的 要素를 추출하여 象徴素라 불렀다.¹¹⁾

8. 金東昭(1968)一국어에서 疊用의 機能을 考察, 象徵語는 별다른 기능도 없이 첩어형으로 사용된다고 했다.¹²⁾

9. 姜憲圭(1968)一象徵語 存立의 가능성에서부터 상징어 다양성의 이유, 音聲象徵과 意味間의 문제점, 音聲象徵의 方法, 子音·母音의 象徵的 意味分野, 국어 상징어의 성격과 장래 및 教育的 意義 등을 다루었다.¹³⁾

10. 李元植(1970)一象徵語에 대한 意味論的 研究로 자료는 李朝語이다. 象徵語를 擬聲語·擬容語·擬情語로 구분했고, 象徵語의 有緣性, 意味構造, 意味機能, 意味變化에 걸쳐서 論述하였다.¹⁴⁾

5) 趙圭高, 「疊用副詞의 考察」, 《어문학》3, (1958), pp.71-95.

6) _____, 「疊用副詞와 音象徵」, 《국어국문학연구》, 靑丘大, (1958), pp.17-41.

7) 南豐鉉, 「母音의 音聲象徵과 語辭發達에 대한 考察」, 《論文集》 創立 三十周年 紀念號, 漢陽大學校(1969), pp.27-41.

8) André Fabre, 「擬聲語·擬態語研究」, (碩論), 서울大(1967).

9) 鄭大河, 「國語象徵語에 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논집》16, 嶺南大(1967)pp.48-55.

10) 韓相珏, 「韓國語에 나타난 象徵語의 考察」, 《論文集》4, 公州教大(1967), pp.49-78.

11) 金宗澤, 「象徵語에 관한 一研究」, 《論文集》3, 大邱教大(1968).

12) 金東昭, 「國語疊用 및 疊語研究」, (碩論), 慶北大(1968).

13) 姜憲圭, 「音聲象徵과 sense 및 meaning의 分化에 依한 語彙擴張研究」, 《國語教育》14, 《한국국어교육연구회》, (1968), pp.123-150.

14) 李元植, 「中期國語의 象徵語研究」, (碩論), 高麗大, (1970).

11. 朴沆植(1973)—文學作品에 나타난 擬聲語·擬態語를 文章修辭法的 立場에서 論하고 있다.¹⁵⁾

12. 梁海錫(1974)—初·中 國語教科書에서 추출한 象徴語를 擬聲語·擬態語·擬情語로 구분하고 이것을 著者 나름대로 意味内容的인 각도에서 분석했다.¹⁶⁾

13. 靑山秀夫(1975)—공시적 方法으로 採集한 象徴語彙를 대상으로, 象徴語의 意味的·形態的 特徵을 論述하고, 象徴語를 擬聲語·擬態語·派生擬態語·一般語로 下位區分하여 音聲象徴의 실태를 論述하였다.¹⁷⁾

14. 劉昌惇(1975)—李朝語의 象徴副詞를 대상으로 하여 語形構成別로 분류하고, 어떤 語根이나 構사에 접미사가 연결되어 象徴副詞가 되는 것과, 象徴副詞에서 다른 構사로 轉形하는 것에 대하여 論述하였다.¹⁸⁾

15. Samuel, E. Martin(?)—한국어는 音聲象徴의 體系를 충분히 사용하는 언어다 하면서 子音加勢와 母音相對에 대해 例를 들면서 論술하고, 末音의 音聲象徴은 불완전하다고 하면서도 ‘-l, -ng, -k’ 등의 音의 性質을 설명하고, 2음절로 된 各 部사의 多數가 ‘용언 어간+ 파생접사’로 구성된다 했다.¹⁹⁾

이 외에 鄭寅承氏의 「母音相對法則과 子音加勢法則」(1938), 李觀洙氏의 「造語面에서 母音의 意味論的 交替에 對하여」(1969) 등이 있으나, 그 論文은 볼 수가 없었다.

또한 崔鉉培, 李熙昇, 金亨奎, 金敏洙氏 등의 國語學概說書와 諸氏의 音韻論, 意味論, 語彙論 등의 著書에서도²⁰⁾ 象徴語와 音聲象徴에 대한 論及을 볼 수 있었다.

以上으로 볼 때 象徴語에 대한 研究의 中心은 音聲象徴面(子音·母音의 交替에 依한 語變의 多樣性, 象徴語를 구성하는 音韻과 意味 사이의 關係)의 考察, ablaut에 의한 意味分化面의 考察, 造語論的 考察 等이라 하겠다. 그러나 多樣한 母音交替를 보여 주는 語彙面에서 各 母音의 象徴價値에 대한 考察은 지조했고, 音韻과 意味間의 關係에 대한 考察은 근거의 타당성 面에서 不完全한 것이라 생각된다. 造語論的인 考察은 象徴語의 풍부한 발달의 要因까지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데 接尾辭의 지적 정도로 그치고 있다.

15) 朴沆植, 「擬態와 擬聲法則」, 《論文集》7, 圓光大(1973), pp. 107-121.

16) 梁海錫, 「現代國語 象徴語의 新說」, (教頤), 高麗大(1974).

17) 靑山秀夫, 「現代韓成語의 象徴語研究」, (碩論), 慶熙大(1975).

18) 劉昌惇, 「論彙史研究」, 《국어학연구》5, 서울: 二友文化社(1978), pp. 133-153.

19) S. E. Martin, 「Phonetic symbolism in Korean」, 論文作成과 研究態度, 李崇寧著, 서울: 博英社(1976), pp. 224-248.

20) 金亨奎, 「國語音韻學」, 서울: 정음사(1976), pp. 527-537.

李熙昇, 金宗澤, 「國語意味論」, 서울: 형설출판사(1977), pp. 103-112, pp. 123-125.

崔鉉培, 「國語語彙論」, 서울: 集文堂(1982), pp. 201-203.

1-3. 象徵語의 定義

言語의 本質的인 構造에 있어서, 흔히 音聲과 意味와의 結合關係에는 絕對性이 없다고 規定한다.²¹⁾ 이런 점에서 어떤 言語體系에 있는 大多數의 語는 無緣的 記號(unmotivation signs)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말 중에는 音聲形式과 意味의 結合이 必然的인 것처럼 보이는 것과 音自體의 特性이 어떤 느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音聲象徵(sound symbolism)이라고 하고 音聲象徵에 基礎한 語를 象徵語라 한다.²²⁾

이러한 象徵語는 有緣的 記號(motivation signs)라 할 수 있는데(音聲的 有緣性), 이에 는 사물의 소리를 흉내낸 擬聲語와 사물의 모양이나 태도, 행동 등의 樣態를 묘사한 擬態語, 그리고 母音과 子音의 交替로 語感을 다르게 하는 一般語도 포함된다.

따라서 象徵語의 下位區分이라 하면 擬聲語·擬態語·一般語의 三區分法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本稿에서는 一般語에서의 音聲象徵은 제외하고 擬聲語·擬態語만을 考察의 대상으로 삼았다.

象徵語의 概念은 명료하지만 諸氏의 論究에서 실제 자료로 제시된 것들을 보면 概念의 적용범위에 見解差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擬聲語·擬態語라 하면 문장상에서 狀態副詞로 쓰이는 것만을 든 이가 많았고, ‘깨끗하다, 비슷하다, 부지런하다’ 등을 擬態語로 보는 이도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活用부사는 擬聲語, 擬態語로 처리되고 있었다.

一般語의 語根에 接尾辭가 연결된 造語方式인 詞類 ‘파랏파랏, 구깃구깃, 부서부서’ 등이 擬態語로 처리된다면 ‘굵직하다, 더부죽하다, 느지막하다’ 등도 같이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을 派生擬態語라 부르코자 한다.

이렇게 볼 때 象徵語의 有緣性이란 部分的 價値觀에 지닐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특히 擬聲語의 경우는 구성 音韻과 意味와의 관계가 보다 強함을 인정할 수 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方言의 象徵語 資料를 선정했다.

II. 資料 分類

2-1. 資 料

資料의 出處와 抽出過程은 다음과 같다.

(1)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에서 “……의 소리.”, 또는 “……라는 소리.”, 또는 “……”

21) 金敏洙, 『新國語學』, 서울: 일조각(1967), p. 170.

22) 玄平孝, 『東亞文化研究所報』, 『新國語文學事典』, 서울: 신구문예각(1977), p. 190.

는 소리, 또는 모양.”으로 해설되어 있는 것과 “……하는 모양.”으로 해설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方言 特有的 것으로 생각되는 것을 抽出하였다. 또 해설 대신 標準語로 對譯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特異한 점이 있는 것은 抽出하였다.

(2) 朴用厚「濟州方言研究」에서 ‘副詞’와 ‘形容詞’項에 나와 있는 語彙中에서 (1)의 자료집에 나와 있지 않은 象徴語彙를 抽出하였다.

(3) 金榮敦「濟州島 民謠研究」에 나와 있는 疊形의 副詞中에서 方言 特有的 것으로 생각되는 몇 語彙를 抽出, 資料에 추가하였다.

(4) 研究期間中 周邊의 言語生活에 쓰이는 象徴語彙를 採集, 추가하였다.

(5) 追加事項: 方言 特有的 것이라 참은 그러한 語彙가 큰사전에 수록되어 있지 않은 뿐 아니라 音韻과 意味面에서 특이한 것을 말한다. 象徴語는 음운 교체 등으로 뜻을 달리하지 않으면서도 그 形態는 여러 가지이므로 (例: 불그죽죽하다, 불그데데하다, 불그드레하다……) 이러한 것은 한 단위로 있다. 제1장에서는 方言 象徴語의 特徵을 알기 위하여 特有的 것이 아닐지라도 資料로 삼았다.

2-2. 語形構成別 分類

象徴語란 音聲象徴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 形態面(語形構成面)에도 몇 가지 共通된 체계가 있음을 보게된다. 이것이 象徴語를 語形構成別로 分類하는 근거이다.

劉昌淳氏는 象徴副詞를 語形構成別로 分類하여, 우선 單形과 疊形으로 兩分한 후 單形에는 完全單形과 接尾疊形, 疊形에는 完全疊形과 不完全疊形이 있다고 했다.²³⁾ 本稿에서는 ‘-ㅎ다’接尾形 형용사에서도 資料를 취했으나 이것은 接尾單形語로 처리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分類法에 依據, 資料를 分類해 보았다. 그러나 完全疊形과 不完全疊形을 細分함에 있어서는 조금 달리 보았다. 劉昌淳氏는 完全疊形을 同音疊形과 同語疊形으로, 不完全疊形을 對應疊形과 類似疊形으로 分類하였는 데 대해, 本稿에서는 一音節疊形, 多音節疊形과 對應疊形, 部分疊形으로 用語를 사용하였다. 理由는 同音과 同語의 區分에 어려운 점이 있었고, 對應疊形에 대해서는 類似疊形이라 한 이도²⁴⁾ 있기 때문에 혼동의 우려가 있어 類似疊形 대신 部分疊形이라 한 것이다.

1) 完全單形

- () 아고, [·]금[·]착 [·]늘[·]래[·]져[·]라.
- () 거[·]레 [·]차[·]라 [·]밀[·]려[·]들[·]라.

23) 劉昌淳, op.cit., p. 233.

24) 李熙昌, 「國語學概說」, 서울: 민중서관(1955), p. 260.

○ 난 편직 몰라났찌.

○ 서론으담 닛바팅이 허우딩쌩 웃어가멍

例文의 ‘금착, 자라, 편직, 허우딩쌩’처럼 單形으로 문장에서 副詞로 쓰이는 어휘 34 語를 抽出, 採取하였다. 이들의 일부는 反復하여 疊形으로, 또는 ‘-하다’에 연결되어 形容사로 쓰이기도 한다. A. Fabre에 依하면 한국의 擬聲語, 擬態語 中 單音節로 된 것이 158개, 3音節로 된 것이 385개로 이들이 거의 單形일 것임을 추정하면 單形の 象徴語彙數는 최소한 500이 넘을 것이다.²⁵⁾ 따라서 方言의 象徴語를 語形構成別로 볼 때 完全單形の 特異한 語彙數는 微少하다 할 수 있다. 특히 單音節로 된 것으로 特異한 것은 찾지 못했다.

2) 接尾單形

○ 가슴이 느착해라.

○ 울큰호영 못살키여.

○ 살당 보민 배롱홀 날도 이실 테주.

○ 질르레 배작홀 집이여.

○ 흐시룩홀 디 평독세기 나.

○ 문 배옥이 올라졌관테,

○ 민주룽이 베리지 말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例와 같이, ‘-하다’, ‘-이’를 後接한 象徴語를 接尾單形으로 分類했다. 劉昌惇氏에 依하면 接尾單形이란 ‘끔직, 번듯, 움죽’ 등 派生擬態語를 가리키고 있으나, 여기서는 ‘-하다’(간혹은 ‘-이’)를 後接하는 純粹擬態語를 接尾單形이라 했다. 이러한 語彙로 77 語를 抽出, 採取하였다.

3) 完全疊形

가. 1音節疊形

○ 눈은 졸들암서라.

○ 밭을 지드럼서라.

○ 생각이 팔팔 남찌.

위와 같이 1音節의 疊形으로 쓰이는 語彙 21語와 ‘건건하다, 번번하다, 증증하다’等

²⁵⁾ André Fabre, op.cit, p.11.

‘-ㅎ다’接尾形의 一音節疊形으로 21語를 抽出, 採取하였다.

나. 多音節疊形

- 구갈구갈 걸어들어오단 보단.
- 똥속똥속 좁쌀엄선께.
- 무서거친 봉당봉당쟁기니.
- 이파리가 잔도 이랑이랑 좋다.
- 새끼달걀 오랑오랑하고.

等 2音節 疊語 152 語와 ‘아름다기슬랑’等 3音節 疊語 17語를 抽出, 採取하였다. 그리고 이와는 다른 형식의 疊用인 ‘비비작작’, ‘왕왕작작’도 볼 수 있었다.

方言의 象徵語의 主類를 이루는 것은 바로 이 多音節 疊形語라 할 수 있다.

4) 不完全疊形

‘맹그르르, 빈저르르, 지리둥둥’等を 部分疊用이라 했는데 이들은 소수이고 末音節의 重疊을 特徵으로 하고 있다.

- 와작바작 (○ 자인 성질이 ~하지 안해부난.)
- 아롱고롱 (○ 정신이 ~했져.)
- 여부록스부록 (○ ~흔전단 좋다.)

等 符號疊形이라 이름한 26語를 抽出, 採取하였다. 이 對應疊形을 ‘암운적 반복’이라고 이름할 수도 있다,²⁶⁾ 첫 음절이 母音이거나, 終聲으로 ‘ㄹ’, ‘ㅁ’을 가진 모음일 때 이러한 疊形이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

以上을 總해, 方言의 象徵語의 主類를 이루는 語形構成은 多音節疊形이고, 單音節로 된 象徵語(‘부, 띠, 뭉, 작, 죽’等)엔 特異한 것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2-3. 意味內容別 分類

音聲象聲의 效果를 갖는 一般語를 제외한 象徵語의 下位區分의 方法에는

- 1) 二分法—擬聲語, 擬態語
- 2) 二分法—擬聲語, 擬意語, 擬情語
- 3) 感覺別 分類法

26) L. R. Konevich, 『蘇聯의 韓國語學』, 菅野裕臣譯, 《亞細亞研究》XIV, No. 2, 高麗大, pp. 210~212 참조

등이 있다.

筆者는 의성어, 의태어의 二分法을 標하는 立場이나, 方音象徵語의 意味內容別 分布狀況을 보다 効果적으로 알아 보기 위하여, 의성어, 의태어를 感覺別로 分類하여 각 感覺에 해당하는 象徵語彙를 配列해 보았다.

1) 聽 覺 語

동물, 물건, 물, 사람, 쇠붙이 등이 스스로 내거나 또는 움직이거나 부딪쳐서 내는 소리나, 其他 自然界의 音聲을 模倣한, 이른바 擬聲語이다.

○ 동물의 울음 소리 : 강강(강아지), 짹짹(개구리), 고개곡(닭), 땡땡(송아지), 멍멍(멧돼지), 짹(멧새), 제제(배미)

○ 말소리 : 다다다다, 붕붕, 앙앙, 응응, 조조조조, 중중, 잔잔

○ 其他 : 팔작팔작~굴그락굴그락(물쭉이 북구멍을 넘어감), 글강글강(굵음), 끼각끼각(門), 도그락(落聲), 두룩두룩~자루자루(雨), 두둑(두드림), 번득번득(이물감), 복복(굵음, 씻음), 수양수양(물이 끊음), 실강실강(씹는 소리), 와삭와삭(깨짐), 왈각왈각~왈각찰각(鐵) 왈그랑 달그랑(부딪침), 와작작(매치림) 크로롱크로롱(꽃소리), 탐블랑(落聲), 타작(깨짐), 푸롱푸롱(鳥飛), 호롱(물이 끓), 글강글강(술), 흥악흥악(乳兒울음) 등과

“끼작끼작, 발탕발탕, 킁킁부글, 밀학밀학, 찰강찰강” 등 “~하는 소리, 또는 모양.”이라 해석된 것도 있다. 이들을 聽覺語에 포함시킬 때, 方音의 청각어, 곧 의성어로 特異하다 생각되는 것은 다 1)語로, 다른 감각에 기초한 의태어와 비교할 때 微少한 數이다.

2) 觸 覺 語

소리도 없고 눈으로 볼 수도 없는 것으로, 피부에 느껴진 感覺을 音聲으로 形象化한 말들이다.

그. 日氣, 溫度

類 別	어 회
시원함	진진하다, 진드렁하다,
~쌀쌀함	산도룩하다~선두룩하다 석석하다, 시주그랑하다, 시치렁하다
무더움	물탁(~덥다), 멩그랑하다
미지근함	멘도롱하다, 모으롱하다

1) 柔性, 滑性, 濕性, 粘性, 乾性

類 別	어 회
柔 性	무랑하다, 물락물락, 물싸물싸 문작문작~멘작멘작~윈작윈작~문작문작 복쌩, 호랑하다
滑 性	느작느작, 문질문질~맨질맨질~문질문질~민질민질~멘질멘질 몽크락하다
濕 性	제작하다, 발작하다, 빌작빌작,
粘 性	부작부작~뿌작뿌작~꾸작꾸작, 찌닥찌닥, 풀풀하다
乾 性	게실게실, 데실데실, 모히작모히작, 사닥사닥, 살강하다, 스루스루, 치락치락,

2) 피부의 痛癢

‘마직마직, 소왓소왓, 와직와직, 와작와작’ 등 피부의 痛症을 模倣한 표현과 ‘싸하다’ 같은 觸覺語도 있다.

觸覺에 基礎한 의태어는 特異한 것이 많은 편이고, 특히 母音交替로 微少한 語感의 差를 낳는 것이 이 분야의 말들에 特異히 발달한 편이다.

3) 味 覺 語

‘짚지궁하다, 메지궁하다~메지궁랑하다, 들삭하다, 칼칼(~쓰다)’ 등 特異한 어휘도 있고, 標準語의 ‘느어하다’에 해당하는 ‘늑늑하다, 뇌곤하다, 늘크랑하다, 늘강하다’와 ‘삼삼하다’에 해당하는 ‘삼도롱하다’ 등도 있다.

方言의 味覺語에는 맛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일반어에 특이한 接尾辭들이 연결된 것이 많다. (例: 짚지궁하다, 메오롱하다, 뽕지롱하다; 씹지궁하다, 씹지궁랑하다, 씹수롱하다; चु지궁하다, चु지롱하다; 새금지다, 새우롱하다, 시금트랑하다; 들크롱하다). 그러나 이러한 말들을 特異한 象徴語彙數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4) 嗅 覺 語

標準語의 ‘고소하다~구수하다’가 方言에선 ‘쿠시롱하다~쿠싱하다~쿠승하다’로 나타난다. 이외에는 嗅覺에 기초한 특이한 象徴語彙를 찾지 못했다.

5) 心 覺 語

心的 狀態에 기초한 것으로, 이들은 擬情語라고도 부를 수 있다. 몇 어휘에 대해서는 卷二의 考察이 보이므로 생략한다.

類 別	어 휘
驚	금착~금치락, 줍막~추물락~주막주막~줍막〃~추막〃
愛 惜	눈착한다, 슬픈한다
恐	찌그릇한다, 징징한다, 선선한다, 썩운한다
命 運	암주릇한다, 추지근한다, 툄두릉한다, 고샷한다, 매뜩한다
揮 蕩 心的不定	가메아뜩한다, 히여뜩한다, 어릿누릿, 헛헛, 여붓여붓, 은질은질 근근, 동동, 불불
氣 憤	킵뜨라헛헛, 툄두릉헛헛, 새뻔주릉한다

○ ‘금착’에 대하여: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에는 ‘끔찍’으로 對譯되어 있으나, 이 ‘끔찍’은 “눈을 감았다가 잠깐 또는 모양”을 말하기도 하고, “아기가 자다가 끔찍하더니 ~”처럼 놀라는 모습이 視覺을 통해 認知되기도 하나, ‘금착’은 內面心理를 模倣한 것으로 ‘금착’놀라는 主体가 2인칭이나 3인칭으로 나타나는 發話에서는 그 發話內容은 話者의 推定에 불과한 것이 된다. ‘금착’은 標準語의 ‘끔찍’과는 意味內容이 다른 特異한 어휘라고 생각된다.

○ ‘눈착한다’에 대하여: ‘눈착한다’는 愛惜한 일을 當하거나, 일이 期待했던 대로 되지 않아 실망했을 때의 心理를 模倣한 말이다. ‘눈착눈착’이라는 疊形語의 뜻은 “땅이 질고 만드러워 밟으면 자꾸 밀려 나가는 모양”인데, 이 ‘눈착한다’의 ‘눈착’에도 그와 같은 動的 意味가 있다. 즉 기대했던 마음이나 또는 平常時의 안정된 마음이 순간적으로 미끄러져 내리는 듯한을 표현하고 있다. 그리고 이 때의 愛惜感, 失望感은 순간적인 것으로, 諦念의 상태에 이르는 것임을 느낄 수 있는데, 이는 ‘눈착’의 末音 ‘-기’의 音象徵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 ‘슬픈한다’에 대하여: ‘슬픈한다’는 침침하고 억울하기까지 한 氣憤이 계속된다는 意味內容인데, 이 進行感은 ‘슬픈’의 末音 ‘-기’와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以上과 같이, 心的 狀態에 기초한 方言의 疊形어에는 特異한 것이 많고, 또 微妙한 意味를 지닌 語源들이 있다.

6) 視 覺 語

擬態語中 觸覺, 味覺, 嗅覺, 心覺에 기초하지 않은 것은 以下수가 視覺에 기초한 것으로 보인다. 어휘를 대응적으로 분류하자 모이코자 한다.

7, 사람의 움직임

i) 言行貌 : 불평, 대꾸, 지결임의 모양을 모방한 특이한 語彙가 많다.

부진부진, 봉당봉당, 봉진봉진, 오조조오조조, 앙죽앙죽, 옹당옹당, 응은응은,
 응진응진, 조진조진, 중은중은, 자글자글, 자각자각, 자그락자그락

이들은 원래는 聽覺에 기초를 둔 것이 視覺化한 것이다. 標準語의 “양알양알, 옹알옹알, 제갈제갈, 부얼부얼” 등과 비교할 때, 첫음절이 ‘ㄷ, ㅈ, 모음’으로 시작되는 점과 造語方式 등에 類似性이 있으나, 造語의 接尾辭로 보이는 제2음절이 다름으로 하여 아주 다른 어휘처럼 보이고, 실제 그 意味에서도 差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言行의 모양을 나타내는 다음과 같은 어휘들이 있다.

깨죽깨죽, 꼬릿꼬릿, 다도악다도악,
 더군더군, 매곡매곡, 빼룩빼룩,
 오분도론, 슬근슬근

ii) 步行貌 : 步行을 模倣한 어휘도 꽤 다양한 편이다.

질씩질씩(성큼성큼), 딱딱(한가로움)
 다글다글~다골다골(어린애)
 베실베실~베질베질(여자)
 보실보실~보질보질(부지런함)
 악작악작(다리를 벌짐)
 으상으상~으상으상(천천히, 용기없이)
 으슬으슬~으슬랑으슬랑(천천히, 용기없이)
 자울자울~자울락자울락(절름거리)
 흥글망글, 흥글흥글(몸을 흔들)
 와릉와릉(走貌), 고부랑강갱(逃走貌)

iii) 感情의 表出 : 喜怒哀樂 등의 感情이 表出되어 視覺적으로 파악되는 語辭들이다.

類 別	어 휘
怒	벨딱~벨치락, 불착불착~불착불착, 울닥울닥, 부굴락부굴락
喜 · 笑	생삭생삭, 빙삭빙삭, 히우딩삭, 헤삭헤삭
不 滿	츠물락츠물락, 커싱커싱
款 心	여부룩스부룩, 기릿기릿, 주우룩훅다
厭	실긋실긋~실구룩실구룩 실짜실짜~실트락실트락 몽글몽글~몽구룩몽구룩
其 他	머숙머숙, 어숙미숙(주저) 우뚱비뚱(비꼼), 피짜훅다(토라짐)

iv) 其 他

類 別	어 휘
허 동 댐 起, 坐	화룩화룩, 우당우당, 빗당빗당, 갈판말판, 어듬더듬 오끗, 외들랑, 오 짹~우 짹, 우긋우긋 벌락, 멜락, 멘삭
밑 침 고 통 其 他	자락, 가락가락 할할하다, 꺾웃꺾웃, 쌍쌍하다, 빗들락// 허웃허웃, 문죽문죽, 문상문상, 늪숙늪숙, 멜록멜록, 할록할록, 움막움막

나. 동물, 사물의 움직임

사람의 움직임을 模倣한 다양한 語辭들에 比하면 동물, 사물의 움직임을 나타낸 語辭들은 풍부하지 못하다.

○ 치들린 상태의 움직임—가들랑가들랑, 동갈동갈, 오들랑오들랑, 시리동동

○ 其他—꼭딱꼭딱, 푹플푹플, 밋밋, 찰찰, 지랑지랑, 줄락, 공꿀공꿀, 들각들각,

들락들락, 굴랑굴랑, 풀탁풀탁, 움삭움삭, 즈묵즈묵

나. 靜 態

類 別	어 휘
集	오골오골, 울랏울랏, 지락지락, 데작데작, 마랑마랑, 오망오망, 오종종이, 모드락하다, 지작하다, 숙닥하다, 수드락하다, 왈락, 종종, 더부작하다
突出 ~부외감	핑핑하다, 뽕뽕하다, 미죽, 메죽이, 무룩하다, 물트락하다, 몽갈몽갈, 문착문착, 봉끄랑하다, 봉탕하다, 봉고뚫하다, 숨뻑, 오도록이, 우득우득, 주작, 주주룩하다, 필룩
光 ~습	베롱하다, 벨롱벨롱~벨롱벨롱, 빨롱, 베욱하다, 번지르르, 비롱비롱, 비롱, 핀찍, 툼라툼라, 꺾미용하다~개미용하다, 외왁하다, 해지근하다, 해뜯하다
虛 ~헉거움 凹 ~深處	핀찍, 허끈하다, 렵속하다, 렵속편편, 편편하다, 흘락, 흘삭, 흔탁흔탁, 움팡하다, 움들락하다, 오고롬하다, 으시룩하다
물세의 모양	관작하다, 과질락하다, 합삭하다, 베소롬하다, 메줄추하다, 나스승하다, 소랑소랑, 오글오글, 오글랑다글랑
熱 氣	과랑과랑, 장장, 우랑우랑, 와랑와랑, 빗랑빗랑

整齊

크쿨하다, 크징하다, 츄츄하다,

즈근즈근, 고단고단이,

미끈함

문뜰락하다, 문딱, 민딱

柔

누굴누굴, 헐랑헐랑~호랑호랑

不平

어틀다툼, 오틀도툼, 얼뜨락달뜨락

부풀음

왕상하다, 보각하다, 과상이~와상이

其他

능살능살, 어랑어랑, 알뭇알뭇, 배작하다, 배짝하다, 뽀뽀,
버버작작, 왕왕작작, 오고쟁이, 오곳이, 빈쭈렁이, 밀꾸러이,
뜰락뜰락, 빗삭빗삭, 비삭비삭, 즈직하다, 즈르륵하다, 오들랑,
오동글랑, 시리동동, 아쑥, 밀끈, 번번하다, 갈갈하다, 덩방하다

視覺語에서는 사물의 움직임이나 상태를 模倣, 表現한 말도 많지만 人間の 言行이나 步行, 感情의 表出을 나타내는데 다양한 어휘가 있음을 볼 수 있었다.

7) 複合感覺, 또는 知覺에 의한 擬態語

사람의 성질이나 몸의 상태, 어떠한 상황 등을 模倣表現한 말들에는 어떤 單純感覺으로 파악된 것이 아닌 것이 많다.

○ 사람의 성질; 고박고박, 발롱발롱, 외삭바삭하다, 노릇하다, 노고목하다, 뜨근하다, 뽀지직하다, 수구룩하다, 슬찌락하다, 웅통하다, 흥분하다, 송글락송글락, 히밀헤밀하다, 수누름하다,

○ 몸의 상태; 너울너울, 네큰하다, 노긱노긱

○ 상황; 어근비근, 어상바상, 아롱고롱

이들을 複合感覺, 또는 知覺에 의한 擬態語로 보고자 한다.

方言象徵語의 內容別分類를 통해, 擬聲語보다 擬態語에 特異한 것이 많으며, 心理內容을 模倣表現(擬情表現)한 心覺語 等에는 그 意味內容이 微妙하여 內包性이 큰 語辭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다. 많은 어휘를 사용하여야 說明될 수 있는 어떤 情況이나 狀態가 喚情的 價値를 갖는 象徵語의 使用으로 效果的으로 傳達될 수 있음은 努力經濟面에서도 有益한 것이다. 이것이 象徵語의 機能이며 상징어 사용의 장점이라 생각된다.

Ⅱ 造語論的 考察

3-1. 方 法 論

造語論이란 주로 複合과 派生의 方法으로 이루어진 單語의 구조를 “語根·語幹·基語·語尾·接辭 等の 요소를 中心으로 解明해 나가는 것으로 인식되는 터이다.²⁷⁾ 韓國語의 많은 語彙가 派生과 複合에 의해 형성 되었듯이 象徴語도 語根에 接辭가 붙는 등의 造語法으로 많은 語彙가 派生되었을 可能性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동물의 소리를 模倣한 擬態語에 接尾辭가 後接하여 동물의 名稱으로 쓰이는 例를 많이 보거나와 또한 一般語에 造語的 接尾辭가 後接하여 象徴性을 獲得하는 境遇도 있다(例: 파랑다→과랏과랏). 그리고 共時的 立場에서는 一般語에서 온 것임을 알 수 있는 것들도 더러 있다. 特히 이러한 것은 間接模倣의 擬態語에 많다.

李朝語의 象徴副詞를 對象으로 造語論的 考察을 한 劉昌惇氏는 象徴副詞에서 다른 品詞로 轉成하는 類型과 接尾詞로서 다음을 들고 있다.²⁸⁾

1. 象徴副詞 > 象徴動詞: —호다, —거리다, —이다, —대다.
2. 象徴副詞 > 象徴形容詞: —호다, —업다.
3. “ ” > 名詞: —이

그리고 轉成象徴副詞라 하여 그 類型은 다음과 같이 說明하고 있다.

1. 語根·接尾辭 > 象徴副詞

語根 반(光)→반호(光), 반호(光), 반짝, 반호다, 반히, 반게.

반(正, 平)→반호(平), 반호반호, 옴/옴(動)→옴중, 우물, 옴죽

2. 用言의 語幹 > 象徴副詞

둥글둥글, 우뚝우뚝, 흔들흔들, 방갈방갈.

3. 用言의 語幹·接尾辭 > 象徴副詞

本章에서는 方言의 資料를 대상으로 象徴語의 中心을 이루는 疊用副詞나 그 語基(以後는 ‘*’로 표시함), 또는 單形의 象徴副詞(역시 ‘*’로 표시함)에 接尾辭가 연결되어 象徴語의 體系를 이루는 面과 일반어에서 象徴語로 派生되는 面을 살펴 보고자 한다.

3-2. 接尾派生法에 依한 象徴語體系

玄平孝「濟州島方言研究」를 통해 調査한 바에 依하면 接尾派生法에 依한 方言의 象徴語

27) 徐炳國, 「國語造語論」,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1975), p. 17.

28) 劉昌惇, op.cit., pp. 39-48.

体系는 다음과 같다.

1. 象徵副詞 > 象徵形容詞; ×ㅎ다, ××ㅎ다, ×지다
2. 象徵副詞 > 象徵動詞; ×ㅎ다, ××ㅎ다, ×거리다, ×이다, ×들다
3. 象徵副詞 > 象徵名詞; ×이, ×이(잇)군, ×와리, ×에기, ×레기, ×생이 等
4. 象徵形容詞; 象徵副詞, 象徵副詞+接尾辭; ×이, ×기, ×하게

여기에서 象徵副詞를 象徵動詞나 象徵形容詞로 轉成시키는 ‘×ㅎ다, ××ㅎ다’는 標準語와 비교, 特異할 바 없고, ‘-거리다’가 後接할 때는 疊形의 語基나 單形에만 後接한다는 句속성도 이미 지적되었다.²⁹⁾ 動詞化接尾辭에서 方言에는 ‘-대다’가 나타나지 않고 ‘-들다’가 있다는 것 정도에 差異가 보이나, 이 ‘×들다’는 玄平孝 「濟州島方言研究」에 ‘봉천(의) p. 106), 흘근들다(p. 593), 슬근들다(p. 526)’ 等 세 語彙밖에는 例를 찾을 수 없는 稀少한 것이다. 反面 ‘-대다’는 年少層에겐 빈번히 쓰이고 있다.

‘象徵副詞 > 象徵名詞’의 경우는 그 接尾辭가 조금 복잡하기 때문에 구체적 例를 보이고자 한다.

- 접미사 ‘-이’
 - 부부기~부레기(←불룩)
 - 봉봉이(← 봉봉거리다)
 - 뽕딱이(←뽕딱뽕딱)
- 접미사 ‘~잇군’
 - 뽕딱잇군, 뽕딱이군(뽕딱뽕딱)
- 접미사 ‘와리’
 - 뽕조와리(←뽕치락: 성을 내는 모양)
 - 버부와리(←버벅거리다, 버부어버리다)
 - 차추와리~차추와리(←차작차작)
 - 티두와리~티두와리(←티듬거리다)
- 접미사 ‘-에기’
 - 무드레기(← 무들무들) 밋스레기(←밋술밋술)
 - 부술러기(← 부술부술)
- 접미사 ‘생이’
 - 술랑생이(← 술랑거리다) 콧생이(← 콧콧ㅎ다)
 - 흥생이~흥생이(← 흥흥ㅎ다)

29) 崔致培, 『구리산본』, 서울: 향우회(1961), p. 186.

- 접미사 ‘-작’ ; 양작 (←양양하다)
- 접미사 ‘-애’ ; 흥애 (←흥흥하다)
- 접미사 ‘-우리’ ; 멧마구리(멧막멧막)

그리고 ‘코벌썰기, 털북새기, 코풀레기’ 등 ‘名詞+상징어+접미사’로 구성된 복합어와 ‘접두사+상징어+접미사’로 구성된 ‘해벌썰기(모든 일을 잘 마무리 하지 못하는 못난 사람)’도 있다.

‘象徴副詞’ > ‘象徴名詞’라 하면, 보통 의성어에 접미사가 연결되어 동물의 이름으로 쓰이는 것들이 대표적인데, 方言에서는 그런 것은 특이한 것이 거의 없고 성을 낸다든가 말을 더듬는다든가 하는, 모양이나 소리를 흉내낸 상징어에 접미사가 연결되어 ‘~하는 사람’이란 뜻의 제니는 어휘가 특이하다.

‘상징부사+접미사’형태에서 ‘~기’는 ‘복기, 축기’ 등의 語例를 볼 수 있었는데 이들은 ‘복חק계, 축חק계’로도 쓰인다.

3-3. 派生象徴語

- i) 희끗희끗, 파릇파릇, 거릿거릿, 꼬깃꼬깃, 꼬불꼬불, 꾸물꾸물, 누글누글, 부슬부슬.
- ii) 살그머니, 살금살금, 살짝, 살며시
선선하다, 서늘하다, 선득선득, 선들선들.

i)은 여러 一般語에 同一한 接尾辭들이 연결되는 例이고, ii)는 동일 語根에 여러 接尾辭들이 연결되는 例이다.

이러한 造語法은 國語 象徴語 발달의 一要因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疊用副詞의 語基 末音節을 형태부(造語論의 接尾辭라 함이 좋다고 생각된다.)로 보고, 疊用副詞 1136 語彙를 對象으로 그 형태부를 考察한 趙奎高氏는 頻度數 20以上の 것으로 다음을 들고 있다.³⁰⁾

- -작/적, -작/적, -작/적 ; 77
- -탁/덕, -탁/덕, -탁/탁 ; 55
- -랑/렁 ; 53
- -락/덕 ; 42
- -랄(랄, 랄) ; 37
- -글(글, 글) ; 36
- -동/둥, -땅/둥, -통/통 ; 27
- -죽(죽, 죽) ; 25

30) 趙奎高, op.cit, p.80.

- -긋(긋), -삭/석, -씩/씩 ; 24
- -실(셀) ; 23
- -족/죽, -쪽/쪽, -축/축 ; 22
- -각/적, -작/적, -작/적 ; 21
- -금(꿈, 큼) ; 20

S. E. Martin氏도 2音節로 된 감각부사의 末音節은 派生接辭라고 하면서 重要的 接尾辭들을 지적하고 있다.³¹⁾

「Many of the two-syllable impressionistic adverbs have an etymologically recognizable morpheme (such as a verb or adjective base) as the first syllable, and the second syllable is to be regarded as a derivative suffix. The most popular of these suffixes is the group-(c) cek, -chak/-chek; -(c)cok/-(c)cwuk; -(c)cik, -(c)cimak, -(c)cumak (Probably all etymologically related to cāk-/cāk- 'little'.) We also find the diminutive suffixes -ax/-ek, -ang, /-eng, etc., which have widespread use outside the system of impressionistic adverbs. Other derivative suffixes found are -(c)cum, -kkak/-kkek, -mak/-mek, -(p)pak, -ppuk, -(s)sek, -sil, -sin, -sul, -(s)swuk, -swung, --ttak/-ttek, -ttuk, -ttwuk; -ulu and -wulu are adverb-deriving suffixes similar in kind.

疊用副詞만을 대상으로 할 때 方言象徵語의 語基 末音節 分布도 大差 없으리라고 생각된다.

수인 一般語, 특히 用言語幹이 포함되어 있음을 共時的으로 확인할 수 있는 疊用副詞의 例를 方言에서 찾아 보면;

- i) 흥글흥글(←흥글다) 소들소들(←소들다)
- ii) 두각두각(두지다) 멜락(←멜르다) 멜씩(←멜쓰다) 쏘악쏘악(←쏘다) 할록할록(←할다) 늘쩍늘쩍(←느리다) 둥클락둥클락(←둥글다) 수굴수굴(숙다)

i)처럼 用言語幹의 重疊이 그대로 象徵副詞를 이루는 例도 있고 ii)처럼 用言語幹+接尾辭(‘-악, -악, -옥, -작, -락, -울, -을’等)로 된것도 있다.

그런데 i), ii)의 例는 2章에서 特異한 象徵語 數를 말할 때 포함시킨 것인데, 그 理由는 ‘흥글다, 소들다, 두지다’처럼 一般語 語幹 自体가 標準語와 差異가 있거나(標準語로는 흔들다, 시들다, 뒤지다.), 一般語 語幹은 같을지라도 연결된 接尾辭가 달라(쏘악쏘악 : 쏘삭쏘삭, 할쪽할쪽 : 할록할록, 늘쩍늘쩍 : 늘작늘작)方言의 特異한 어휘처럼 느껴지는 까닭에서다.

共時的으로는 一般語 語幹의 包含을 발견할 수 없을지라도 疊用副詞의 많은 數가 ‘一般語 語幹+接尾辭’로 造語되어 있다고 본다.

31) Samuel. E. Martin, op.cit, p.248.

다음은 用言 語幹에서 派生된 것이 아니라 象徴語(1音節 疊形)에 接尾辭의 연결로 또 다른 象徴語를 派生하는 例이다.

- 앙앙하다, 앙앙거리다→앙죽앙죽(→앙죽거리다)
- 붕붕하다, 붕붕거리다→붕당붕당, 붕진붕진(→붕당거리다)
- 웅웅하다→웅진웅진, 웅당웅당
- 중중하다, 중중거리다→중은중은
- 조조조조→조진조진
- 자자자자→자작자작, 자글자글

이들은 모두 불평을 늘어놓는다거나 시끄럽게 말을 한다는 거의 비슷한 뜻을 지닌 方言 특유의 象徴語들인데 흥미로운 造語法이 아닐 수 없다.

다음은 主로 ‘-하다’ 接尾形 象徴語에서 찾을 수 있는 方言의 特異한 接尾辭와 그 語例를 살펴 보기로 하겠다.

接尾辭‘-k’系

○ $-r^{\circ}k$; 노고룩하다~누구룩하다(←녹룩하다), 산도룩하다~선두룩하다(←어근 ‘선’)³²⁾, 오모룩하다(→어근 ‘움’), 모드락하다, 쪼끌락하다, 벌으락하다, 수드락하다 해또룩하다, 합소룩하다.

○ $-c(cc, ch)^{\circ}k$; 골척하다(←꿍다), 골작하다~굳작하다(←꿍다), 모히작모히작(←모히다), 편찍(←어근 ‘편’), 흙직하다(←흙다), 제 짱, 오 짱, 솔 짱.

○ $-t(tt, th)^{\circ}$; 고르닥하다(←고르다), 곱닥하다(←곱다), 속닥하다, 문딱, 물딱, 가메아득하다.

○ $-s(ss)^{\circ}k$; 합삭하다. 세삭, 북 짱

○ $-pp^{\circ}k$; 소 짱, 뽕 짱

接尾辭‘--o’系

○ $t^{\circ}r^{\circ}n$; 산드렁하다(←어근 ‘선’; 선선하다), 진드렁하다(←어근 ‘진’; 진진하다), 심드렁하다(←어근 ‘심’; 심심하다), 삼드렁하다(←어근 ‘삼’; 삼삼하다), 문두렁하다(←어근 ‘문’; 문문하다), 편두렁하다(←어근 ‘편’; 편편하다), 가벤또렁하다(←어근 ‘갑’; 가뱌다)

○ $-(p)c^{\circ}r^{\circ}n$; 얹지롱하다, 줍지롱하다, 뱀지롱하다, 노립지롱하다, 반찌롱하다.

○ $-(p)is^{\circ}r^{\circ}n$; 가모소롱하다, 감소롱하다, 김수롱하다, 마느스롱하다, 씹수롱하다, 뽀입스롱하다, 불갑스롱하다, 부립스롱하다.

○ $-^{\circ}n$; 거치렁하다, 가망하다, 누렁하다, 벌경하다, 소랑하다, 호랑하다, 뽀양하다, 마미용하다, 가모롱하다, 불고랑하다, 꾸리롱하다, 시우롱하다, 메오롱하다, 새우롱하다,

32) 語根이라 하면 語學者들이 語源的 語根이라 하는 것을 뜻한다. 方言에서는 筆者의 판단에 의하여 語根으로 採用한 것이 包含되어 있다.

사노롱하다.

○ 기타; 뽕끄랑하다(←어근 ‘뽕’), 들크롱하다, 쓰구몽하다, 즐마몽하다, 알루랑하다, 봉탕하다, 움팡하다.

이 때의 接尾辭는 語幹 末音의 영향을 받고 있어 音韻的 環境에서 결정되는 部分도 있으나 ‘-r’η’은 音聲象徵的 效果를 나타내기 위한 것임이 틀림없다.

接尾辭 ‘-n’系

깁지근하다, 썩지근하다, 깁지근하다, 배지근하다
접미사 ‘-지근’은 方言語에 주로 쓰이는 접미사이다.

接尾辭 ‘-m’系

새금지다, 수투롬하다, 소롬하다, 비습하다, 돌코롬하다

接尾辭 ‘-t’系

봉고룻하다, 봉구룻하다

以上을 通해 觸覺, 味覺, 事物의 크기, 형태 등을 뜻하는 일반어 語幹에 多樣한 接尾辭가 連結되어 音聲象徵的 效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러의 接尾辭로는, -η’系가 우세함을 알 수 있었다. 方言 語彙의 特異性을 설명해 주는 一端諸가 되리라 본다.



IV 音聲象徵의 一考察

象徵語란 音과 그것이 표현하는 意味 사이의 有緣性을 特長으로 하는, 곧 音聲象徵에 基礎한 語이기 때문에 象徵語研究에서 音聲象徵의 연구는 主要한 位置에 있다.

국어의 音韻體系는 音聲象徵을 나타내는 데 보다 適合한 體系라 할 수 있다. 母音에 陽性母音과 陰性母音의 體系가 있어, 前者가 ‘小, 急, 密, 速, 銳, 寡, 明, 輕, 薄, 清’의 표현 가치를 갖는데 비하여, 後者는 ‘大, 緩, 疎, 遲, 鈍, 多, 暗, 重, 濁, 厚’의 표현 가치를 갖는데 이것을 母音相對法則 또는 母音對應이라 한다. 子音에는 破裂音에 二岐的 相關束 現狀이 있어 ‘ㄱ, ㄷ, ㅂ, ㅈ’이 각각 平音, 硬音, 有氣音으로 對立되어 語義強化에 이용되는 데 이를 子音加勢法則이라 한다. 이러한 子音, 母音의 音韻交替는 單말의 智的 意義는 分化하지 않고 語感을 豊富하게 나타내게 되는데, 이렇게 音相으로 인한 語感의 差等은 近似語로 이루어지는 수많은 語彙群을 形成한다.³³⁾

33) 金敏株, op. cit. pp. 188~289.

A. Fabre에 依하면, 子·母音變化와 反復에 依해 의성어, 의태어는 語感의 差等만 있고 근본적인 뜻은 같은 近似語를 갖는 경우가 많은데, 그 近似語의 數(이를 單位數라 함)는 2가 가장 많고, 24까지 있다고 했다.³⁴⁾

그러나 音聲象徵 研究의 中心은 象徵語의 構成音韻과 그 意味間의 關係에 대한 것이라 하겠다. 이를 研究한 諸氏의 研究結果 中 가장 最近의 것인 靑山秀夫의 것을 요약해 보면

i) 擬聲語의 音聲象徵

○ 衝突로 인한 音: 初聲은 대체로 破裂音, 破擦音이 쓰였으며, 특히 金屬이나 硬質인 物體가 發하는 소리는 濃音이 많이 쓰여지고 있다. 終聲은, 急激한 變化나 딱 끊어지는 소리에 內破音이 쓰여지고, 뒤에 餘韻을 남겨서 울리는 소리에 鼻音 받침이 쓰여지고, 뒤에 계속 되더라도 單純하지 못하고 混雜한 소리에 流音이 쓰여진다.

○ 摩擦로 인한 音: 初聲은, 대체로 摩擦音, 兩脣破裂音, 半母音이 쓰이고 液体의 流動하는 소리에 齒莖破裂音도 쓰였다. 終聲에서 內破音, 鼻音 받침에 關해서는 위의 경우와 같고, 物體가 굴러가거나 流動할 때의 소리에 流音이 쓰여지고, 확실히 끝나지도 않으며 變化가 없는 소리는 母音으로 끝나고 있다.

○ 반드럽게 계속되는 音: 굴러가거나, 감기거나, 흐르거나, 끊어오를 때에 나는 소리가 뒤에 반드럽게 維持 繼續될 경우에는 流音을 二音節중 덧붙인 ‘도르르’ 같은 型으로 表現되고 있고, 반드럽게 繼續되다가도 마지막에 와서 變化가 있는 경우에는 衝突, 摩擦로 인한 音에서 既述된 바와 같은 特徵이 나타난다.

ii) 擬態語의 音聲象徵

擬態語 中 自然音 비슷한 語音으로 類推的으로 描寫한 것, 곧 一音節反復語의 音聲象徵은;

○ 頭音은, 緊密, 強固의 狀態이면 濃音이 쓰이고 激, 濁, 鈍의 狀態이면 激音이 쓰인다.

○ 末音은, 明快, 正確 또는 終結이 分明한 狀態이면 內破音으로 끝나고, 連續, 維持의 狀態이면 流音으로 끝나고, 餘韻을 남기거나 終結이 分明하지 못하면 鼻音 또는 母音으로 끝난다.

iii) 派生擬態語의 音聲象徵

派生擬態語에 있어서는 語基의 一部分 構成하는 接尾辭가 音聲象徵의 役割을 맡는다.

○ 內破音으로 끝나는 것: 一時的 狀態의 變化가 急激하고 剛하고 刺戟이 큰 狀態에 쓰인다.

○ 鼻音으로 끝나는 것: 柔軟, 緩漫, 輕感, 彈力性이 있는 狀態에 쓰인다.

○ 流音으로 끝나는 것: 持續, 流動, 濕潤의 狀態에 쓰인다.³⁵⁾

34) André Fabre, op.cit, p.19.

35) 靑山秀夫, op.cit, pp.27~39.

위의 青山秀夫氏의 象徴語에서의 기호와 意味의 관계에 대한 考察은, 다른 研究者와는 달리, 상징어에서도 有緣性의 정도가 강한 意義어, 自然音 비슷한 音으로 類推적으로 描寫한 擬態語, 派生擬態語 順으로 그 研究의 程度 또한 달리 하였기 때문에 그 研究結果에 無理가 없다고 본다. 派生擬態語의 語基 全体를 音聲象徴 研究의 대상으로 하여 고찰할 경우, “꿈은 모양을 가리키는 擬態語의 첫소리는 ‘k+o+p’이다.”³⁶⁾와 같은 不必要한 指摘도 하게 되는 것이다.

筆者는 方言의 경우, 상징어나 구상하는 音韻과 意味間의 考察의 必要性은 별로 느끼지 못했다. 特히나 그러한 考察의 중심이 되어야 할 擬態語에는 별로 특이한 것이 없는 형편이다.

本章에서는 ‘·’의 保有에서 오는 母音交替樣狀의 特異성과, 母音의 多樣한 交替로 인한 語感의 豊富를 보여주는 몇 語例와, 현저하게 나타나는 母音調和의 破壞例, 그리고 音聲象徴的 效果를 위하여 音節을 늘여 쓰는 語例를 살펴보고자 한다.

1) 母音交替

① · : ㅡ ; ㄱ막ㄱ막~끄막끄막,

드랑드랑~드랑드랑, ㄹ상ㄹ상~으상으상,

글강글강~글강글강, ㅁ질ㅁ질~은질은질,

ㅁ탁ㅁ탁~그탁그탁, ㅁ군ㅁ군~꿈군

② · : ㅐ ; 불치락~벨치락, ㅎ랑ㅎ랑~헛랑헛랑, ㅁ집ㅁ집~베질베질,

ㅁ작ㅁ작~벤작벤작

③ · : ㅓ ; ㅓㅓ~따따, ㅓㅓ~말말, ㅓㅓ~바바, ㅓㅓㅓㅓ~바ㅓㅓㅓ

④ · : ㅕ ; ㅕㅕ~멘들라

以上の 母音交替例는 ‘·’의 保有로 인해 方言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다. ‘·’는 ‘ㅓ’의 後高音으로 그 音價는 [ㅐ]이다.³⁷⁾ ‘ㅓ’보다는 작고 ‘ㅕ’나 ‘ㅐ’보다는 큰 語感을 갖는 것으로 筆者에게는 認識된다.

ㅁ작ㅁ작~ㅁ작ㅁ작, ㅁ작ㅁ작~ㅁ작ㅁ작

ㅁ들ㅁ들~ㅁ들ㅁ들~ㅁ들ㅁ들~ㅁ들ㅁ들

~ㅁ들ㅁ들

부드러운 것과 미끄러운 것을 표현하는 말에 母音交替가 여러 가지로 일어나 多樣한 語感을 갖는 예이다. A. Fabre에 依하면 五等母音變化의 例는 ‘앵~엥~윙~웁~앙’³⁶⁾ 類이고, 四等母音變化도 흔하지 않다. (‘ㅕ~ㅓ~ㅓ~ㅓ, ㅓ~ㅓ~ㅓ~ㅓ, ㅓ~ㅓ~ㅓ~ㅓ’等)

26) André Fabre, op.cit, p.99.

37) 玄平孝, 「濟州島 方言研究에 대한 考討」, 《方言》1, pp.36~39.

方言의 경우, 부드러운 정도와 미끄러운 정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다양한 음운 교체를 이용한다는 것은 母音의 象徵價値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때 母音의 交替는 微細한 語感의 差別을 낳는데, 筆者의 力量으로 그 微細한 語感의 差別을 解明하기는 不可하나 ‘멘작〃 < 모작〃 < 민작〃 < 문작〃’의 音色體系가 아닌가 한다.

화문 내는 모습을 나타내는 ‘벨딱~블딱~불딱’도 三等母音變化를 보여주고 있다.

方言의 象徵語의 音韻構造 中 特異하다 싶은 것은 母音調和의 현저한 破壞傾向이다.

- i) 문작곤작 굴작갑작 그랑그랑 는작는작 늘작늘작 들작들작 슬작슬작
- ii) 물랑물랑 물강물강 문작문작 수박수박 풀락풀락 푸삭푸삭 우락우락 움삭움삭
- iii) 티딱티딱 쫄랑쫄랑 엄방엄방

同地語의 경우라면 “곤적곤적, 그리그렁, 슬쩍슬쩍”, “물렁물렁, 물경물경, 풀러풀러”, “티딱티딱, 쫄렁쫄렁” 등으로 母音調和現象을 보일 語辭들이 方言에서는 母音調和가 破壞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S. E. Martin이 말하는 “light isotope, heavy isotope”中 어느 쪽에 들어갈 것인지도 의문이다. 李崇寧氏는 韓國人에게 있어선 작은 것이 강한 印象을 준다고 하였다¹⁸⁾ 筆者에게도 ‘그렁그렁’보다 그랑그랑’에서 받는 인상이 강한 것으로 느껴진다. ‘- : ㅏ’, ‘- : ㅑ’, ‘- : ㅓ’等 다른 계열의 母音이 배열되고 있음은 語感의 強化에 위한 것이 아닌가 한다.

예로 母音의 交替는 語感의 對立을 넘어 語意의 對立까지도 지적될 수 있다. ‘나 : 너’, ‘날다 : 날다’, ‘날다 : 넘다’等은 자주 지적되는 예인데, 이것을 ablaut라고 한다. 本稿에서는 그러한 意味論 分野까지는 들어가지 않았다.

2) 子 音 交 替

차일음의 三岐的 相關束 現象에 의한 ‘平音 < 硬音 < 激音’체계의 子音加勢의 例는 特異할 바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았다.

‘더투와리(말을 더듬는 사람)~더투와리(말을 심하게 더듬는 사람), 자주와리(말을 잘 지껄이는 사람)~자주와리(말을 조금 더듬는 듯하면서도 잘 지껄이는 사람)’의 例에서는 激音이 音生을 缺한 象徵價値를 지닐 수 있다.

特異할 바는 없지만 ‘平音, 硬音, 激音’의 交替를 除外한 子音交替의 例만을 간단히 보려고 하겠다.

가. 平音에서의 交替

18) 李崇寧, 『民語音聲象破音에 대하여』, p. 17.

- i) ㄱ : ㅇ ; 으쌩으쌩~으쌩으쌩, 몽클락~몽클랑, 질각질각~질강질강, 쿨룩쿨룩~쿨롱쿨롱
- ii) ㅅ : ㄹ ; 수긏수긏~수굴수굴, 궁긏궁긏~궁글궁글, 니웃니웃~니울니울, 고붓고붓~고불고불
- iii) ㄱ : ㄹ ; 부작부작~부갈부갈, 비작비작~비갈비갈

ㄴ. 中間子音의 交替

- i) ㅅ : ㅅ ; ㅅ실ㅅ실~ㅅ질ㅅ질, 베실베실~베질베질, 박삭~박작, 억삭억삭~억작억작
- ii) ㄷ : ㅅ ; ㄷ탁ㄷ탁~ㄷ작ㄷ작, 문탁문탁~문작문작

ㄷ. 音韻의 첨가

- i) ㄹ첨가 ; 바롱바롱~발롱발롱, 두작두작~둘작둘작, 구무락〃~굴무락〃
- ii) ㅇ첨가 ; ㄱ막ㄱ막~꺾막꺾막, 오막오막 ; 움막움막, 추막추막~춤춤, 고비고비 ; 곱비곱비
- iii) ㅂ첨가 ; 고박고박~곱박곱박

ㄱ과 ㄴ項의 音韻交替는 交替되는 音의 性質에 따른 對立을 낳지만 ㄷ項의 添加는 加勢의 機能을 지녔다고 본다

3) 말을 늘여 쓰는 方式

- i) ㅅ드ㅅ드~ㅅ드드드드드, 두룩두룩~두르룩두르룩, 쿨쿨~코롱코롱~코로롱코로롱
- ii) 공꿀공꿀~공꿀락공꿀락, 아글아글~아글락아글락, 자울자울~자울락자울락, 몽클몽클~몽클락몽클락, 몽글몽글~몽구룻몽구룻
- iii) 금착~금치락, 벨딱~벨치락, 보각ㅎ다~보그락ㅎ다, 게작ㅎ다~게자작ㅎ다, 홀탁ㅎ다~홀타탁ㅎ다, 솔짜ㅎ다~솔찌락ㅎ다, 씹지근ㅎ다~씹지구랑ㅎ다 等

i)은 擬聲語의 경우, 늘여 쓰여진 例인데, ‘르르, 드드’ 等 部分疊用이 되게 하여 繼續되는 音을 나타내고 있다.

ii)는 續, 動, 柔의 性質을 지닌 ‘ㄹ’ 대신 한 음절이 늘어나면서 그 末音이 內破音이기 때문에 一時的인 斷絶感을 느끼게 한다.

iii)은 方言에 아주 현저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어떠한 움직임이나 원상태의 과급 범위가 넓음이나 성질의 강조 等を 표현한다.

이렇게 길게 늘여 쓰는 것도 子音이나 母音의 交替와 같이 많은 近似語群을 이루는 一要因이라고 생각된다.

V. 結 論

以上에서 檢討한 결과를 여기에 다시 간추려 보고자 한다.

1) 形態와 意味에서 特異한 것으로 認定되는 濟州島方言의 象徴語 資料를 語形構成과 意味內容別로 分類한 결과; 語形構成面으로 볼 때 方言의 特異한 象徴語는 二音節語基의 完全疊形에 가장 많이 分布되어 있었고, 一音節로 이루어진 單形의 것은 特異한 것이 거의 없었다. 意味內容別 分類는 象徴語를 우선 聽覺, 觸覺, 味覺, 嗅覺, 心覺, 視覺, 複合感覺 乃至 知覺 等 七分한 후 그것을 또 意味別로 細分하여 資料를 配當했는데, 그 결과 聽覺語 곧 擬聲語엔 特異한 것이 많지 않고, 心覺 곧 心理狀態의 模倣的 表現인 말과 視覺語 中 言行貌, 步行貌를 나타낸 말에 特異한 것, 微妙한 뜻을 지닌 말들이 많고 觸覺語에 四等·五等 母音交替를 통해 語感의 差等을 가져오는 말들이 더러 있었다.

2) 造語論的인 考察에서는 接尾派生法에 依한 象徴語體系의 考察과, 一般語, 語源의 語根, 말소리를 흉내낸 疊語에 接尾辭가 연결되어 派生象徴語化함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方言의 象徴語體系(Ⅱ의 疊形 및 單形+接尾辭);

- ① 象徴形容詞 ~ ×하다, ××하다, ×지다
- ② 象徴動詞 ~ ×하다, ××하다, ×거리다, ×이다, ×들다
- ③ 象徴名詞 ~ ×이, ×와리, ×에기, ×생이 等
- ④ 象徴副詞 ~ ×이, ×기, ×하게

造語論的인 面의 考察은 方言象徴語의 特異性의 一端을 說明해 준다고 보는데, 特異한 象徴語의 一部는 接尾辭의 連結過程에서, 또는 一般語自體의 異質性에서 온 것이라는 것이다. 특히 味覺 및 色彩를 표현하는 말에 特異한 接尾辭가 연결되어 語感을 多樣하게 하고 많은 近似語群을 이루는 것을 보았고, 그 때의 接尾辭로는 '-ㅁ'系가 優勢함을 살펴 보았다.

3) 音節象徴面에서는 '·'의 保有로 말미암은 母音交替 樣狀의 多樣性, 母音調和의 破壞로 語感의 變化하는 面과, 子音交替의 樣狀 및 길게 늘어 써서 語感을 多樣하게 하는 面을 살펴 보았다.

象徴語는 傳達機能의 高度로 發達한 語이다. 사물의 움직임이나 狀態 等を 感覺的으로 抽象하여 直說的인 言語로 표현한 象徴語의 發達은 情感의 多樣性의 결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象徴語를 通해서는 音衆의 心理를 파악함이 가능하다고 생각

된다.

濟州島方言 特有的 象徴語를 對象으로 하여 그러한 面은 考察하고 싶었으나, 筆者의 力量不足으로 資料의 分類, 造語論的·音聲象徴的 一面的 考察에 그치고 말았다.

資料의 수집에 있어서도, 方法을 갖추서 실제 島民의 言語 生活에서 수집하여, 方言資料 集에 나와 있지 않은 많은 象徴語資料를 補完하지 못한 점 未洽하게 생각하는 바이다.



參 考 文 獻

- 姜憲圭(1968), 「音聲象徵과 sense 및 meaning의 分化에 依한 語彙擴張研究」, 〈國語教育〉 11, 한국국어교육연구회.
- 金東昭(1968), 「國語疊用 및 疊語研究」(碩論), 서울대.
- 金滋洙(1964), 「新國語學」, 서울: 일조각.
- 金榮敦(1965), 「濟州島民謠研究」, 서울: 일조각.
- 金宗澤(1968), 「象徵語에 관한 一研究」, 《論文集》3, 大邱教大.
- 金宗澤·千時權(1977), 「國語意彙論」, 서울: 형설출판사.
- 金亨奎(1978), 「國語學概論」, 서울: 일조각.
- 南鳴鉉(1969), 「母音의 音聲象徵과 語辭發達에 대한 考察」, 《論文集 창립 30주년 기념호》, 남양대.
- 文完姬(1975), 「韻文에 나타난 語詞考察」, (教碩), 경희대.
- 朴用厚(1960), 「濟州方言研究」, 서울: 동일문화주식회사.
- 朴沆植(1973), 「擬態와 擬聲法攷」, 《論文集》, 圓光大.
- 徐炳國(1975), 「國語造語論」, 대구: 경북대학교 출판부.
- 서울대학교 東亞文化研究所編(1974), 「國語國文學事典」, 서울: 신구문화사.
- 沈在箕(1982), 「國語語彙論」, 서울: 集文堂.
- 梁海錫(1974), 「現代國語 象徵語의 研究」, (教碩), 高麗大.
- 劉昌淳(1978), 「語彙史研究」, 《국어국문학총서》5, 서울: 三友文化社.
- 李崇寧(1957), 「國語造語論試攷」, 《진단학보》18, 진단학회.
- _____ (1961), 「國語造語論攷」, 《한국문화총서》, 제15집, 서울: 서울문화사.
- _____ (1978), 「國語音聲象徵論에 대하여」, 《언어》제3권, 제1호, 한국언어학회.
- 李元植(1970), 「中期國語의 象徵語研究(碩論)」, 高麗大.
- 李熙昇(1955), 「國語學概論」, 서울: 민중서관.
- 鄭大河(1967), 「古語象徵語에 대하여」, 《국어국문학연구논집》16, 嶺南大.
- 趙奎高(1958), 「疊用副詞와 音象徵」, 《국어국문학연구》2, 靑丘大.
- _____ (1958), 「疊用副詞의 考察」, 《어문학》4.
- 최현배(1961), 「우리말론」, 서울: 정음사.
- 韓相珪(1967), 「韓國語에 나타난 象徵語의 考察」, 《論文集》, 公州教大.
- 許一雄(1970), 「國語音韻學」, 서울: 정음사.
- 玄春媛(1980), 「濟州島巫俗資料事典」, 서울: 신구문화사.
- 玄平孝(1962), 「濟州島方言研究」, 서울: 精研社.
- _____ (1979), 「濟州島方言研究에 대한 檢討」, 《方言》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青山秀夫(1975), 「現代韓國語의 象徵語研究」, (碩論), 경희대.
- Koncevich, L. R., 「蘇聯의 韓國語學」, 菅野裕臣譯, 《아시아연구》, 제11권 제2호, 서울: 고려대학교출판부.
- Mortin, S. E. (1976), 「Phonetic Symbolism in Korean」, 「論文作成及 研究態要」, 李崇寧 著, 서울: 博英社.

A Study of Symbolic Words in Cheju Island Dialect

Yeong-hee Lee

This thesis is a study of the symbolic words in Cheju Island dialect. Symbolic words are subcategorized into 1) word of sound imitation (onomatopoeias), 2) word of manner-imitation (mimetic words), and 3) general vocabulary. This thesis dealt with 1) and 2).

I have collected characteristic words based on sound-symbolism, and surveyed them at the three aspects; the material distribution of word-form construction and signification, word-formation, and sound symbolism.

The word-form construction is divided into singular form and duplicated form, and the singular form is subdivided into complete singular form and suffixation form, complete and incomplete in the duplicated form. According to signification of the symbolic words, they are distinguished by auditory, visual, tactual and other several senses.

The main symbolic words in Cheju dialect consist of complete duplicated form. Though there are not many characteristic onomatopoeias, many mimetic words expressing a state of mind or speech acts are prominent. Mimetic words based on tactual senses procreate various word-feeling using phoneme substitution.

The symbolic words system of Cheju dialect owing to suffixation derivative are as follow :

1. symbolic adjective ; ×hɔta, ××hɔta, ×cita
2. symbolic verb ; ×hɔta, ××hɔta, ×kelita, ×ita, ×tɔta
3. symbolic noun ; ×i, ×wari, ×sengi etc.
4. symbolic adverb (non-original symbolic adverb) ; ×i, ×ki, ×hɔkey

Some mimetic words are made by the connection of derivative suffix to the stem of general vocabularies. Especially among the words expressing tastes and colors, the various suffixes are used to build up approximate words group. The dominant derivative suffix in that case is '-ŋ'. Some peculiar mimetic words result from their suffix connecting process, the heterogeneity of the dialect itself and the change of in the phoneme system.

Possession of the /v/ makes the variety of the vowel replacement, the destruction of the vocal harmony intensifies the word-feeling. The aspects of the phoneme replacement and lengthening the sound of the words makes the difference of word-feeling and approximate words group.

